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1996년 9월 24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핵 개발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 천 번의 핵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인류는 이를 통해 계속되는 불안정한 군비경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다음 세대에 평화롭게 약속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약입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 25주년을 맞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지지하는 차세대 리더그룹(CTBTO Youth Group, CYG)은 지난 시간 동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O)가 이루어 낸 눈부신 성과와 의미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핵 비확산과 군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비준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더 많은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그 어떠한 형태, 규모, 장소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으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O)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검증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신 과학 기술을 통한 과학적 검증 수단과 국제 전문가의 감독하에 핵실험 여부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O)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혁신하며,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차세대 리더그룹(CTBTO Youth Group, CYG)은 핵실험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25세부터 35세 미만의 많은 차세대 리더들은 이 조약의 결의 시점부터 함께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발효 된 이러한 상황은, 핵 실험을 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를 과거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해서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한 185개국과, 이미 비준을 한 170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발효조건국 8개국을 포함해, 미서명국, 미비준국들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이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차세대 리더그룹(CTBTO Youth Group, CYG)은 고위급 위원들(Group of Eminent Persons, GEM)과의 세대를 뛰어넘는 협업에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위급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고, 차세대 리더들 역시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 세대가 이끌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정부와, 커뮤니티, 그리고 지도자 모두에게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을 계속해서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실험이 없는 세상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더 나은 인류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 끝내야 합니다.